

# 농업법인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취농의향 영향요인

안주영<sup>a</sup> · 엄지범<sup>b\*</sup>

<sup>a</sup>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과정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sup>b</sup>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farming jobs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Ju-Young An<sup>a</sup> · Ji-Bum Um<sup>b</sup>

<sup>a</sup>Master Studen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b</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farming jobs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We conducted a survey on 181 young farmers and analyzed their inclination towards employment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using a probit model. The findings revealed several implications. First, adherence to labor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provision of the four major insurances, emerged a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individuals considering employment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Additionally,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individuals perceiving agricultural corporations as contributors to job expansion and their willingness to work for such entities.

**Key words:** young farmers, agricultural corporations, intention to farming job, probit model

## 1. 서론

최근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집계됐다. 지금 추세로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사회의 생산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보다 많아져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촌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비 농가 수는 4.8% 감소한 103만 6,000가구이고, 농가 인구 수는 9.8% 감소한 231만 7,000가구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9.9%로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닌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농업경영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9.9%를 차지하고 있지만 40세 이하의 0.8%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농업인력의 신규 유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농지 등의 경영자산을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으며, 영농기술의 습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농촌 정착에 문제를 겪고 있다. 통계청 귀농귀촌실태조사(2019~2021)에 따르면, 귀농인의 영농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이 45.6%로 1순위이며, 다음은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20.5%)으로 나타났다. 영농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업에 진입하여 농지가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영자산 확보마저 애로가 생기면서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지

주요어: 청년농업인, 농업법인, 취농의향, 프라빗 모델

\* 교신저자(엄지범) 전화: 061-750-3271, e-mail: umjibum@snu.ac.kr

못하는 한계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농업인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진입 경로로 농업법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엄지범, 김원빈, 심근호, & 안주영, 2022). 농업법인에 고용된 인력을 농업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의 고용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법인을 연수처로써 활용하고 있다. 이는 농업법인이 가진 경영역량과 노하우를 연수기간동안 청년농업인에게 전수함으로써 초기에 경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독립취농하거나 계속 고용하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법인 제도는 제도가 만들어진 1990년 당시 촌락 사회의 약체화와 농협의 경제사업 약화 등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작목반과 같은 기존의 판매유리조직 형태로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Um, 2018). 따라서 협동조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마저 정부의 보조금 수급을 위해 조직화되는 양상에 의해 실체가 없는 법인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문제로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농업법인의 최근 전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조합형인 영농조합법인과 기업형인 농업회사법인의 숫자가 역전된 것이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약 30년간 영농조합법인이 다수를 차지해 오다가 최근 농업에 있어 기업적 경영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농업법인제도를 통한 다양한 경영체의 등장도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과 경험관계인 미니농협형 농업법인도 등장하고 있고, 6차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농산물 가공 및 서비스 부문으로 다각화하는 법인도 늘어나고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농업관련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전개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기업적 농업경영체라고 할 수 있는 회사형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형 농업법인의 연구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상의 시각에서 볼 때 농업법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업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법인에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며(권혜진, 2019), 창농이 아닌 법인 취업 형태의 농업 분야 진출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마상진, & 박시현, 2020). 또한 해외 선행연구에서 중국 농촌에서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토지를 협동조합에 귀속시켜 토지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였으며(Baoling, Ashok, & Biliang, 2018), 일본의 농업 고용 환경에 대해서는 농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환경과 같은 취농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Ichihara, Matsukawa, Kitamura, & Yokoyama, 2019). 이는 농업법인과 취농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며, 농업법인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진입과 인력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이상의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자산 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농업법인을 통한 취농 및 연수를 상정하고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에 대한 기술력과 자본을 갖고 있어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농업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진입 후의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 애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청년 유입을 활성화시킴으로 노동력 부족,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등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 농업법인을 청년농업인의 농업유입 경로로 상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농업법인의 현황과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 취농 의향, 관련 취업지원사업, 희망하는 근로조건 등의 중요도, 개인취농역량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업법인 취농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농업법인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인식을 확인하고, 고용형 취농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고용형 취농 활성화 상황을 가정하여 선택적으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농업법인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농촌 유입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농업법인 현황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전체 24,499개 소이고, 전년 대비 1,535개, 7%가 증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10,136개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4개, 0.9%가 감소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14,363개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78개, 9.8%가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이 26%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개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영농조합법인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에는 전체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이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농업에 있어 기업적 경영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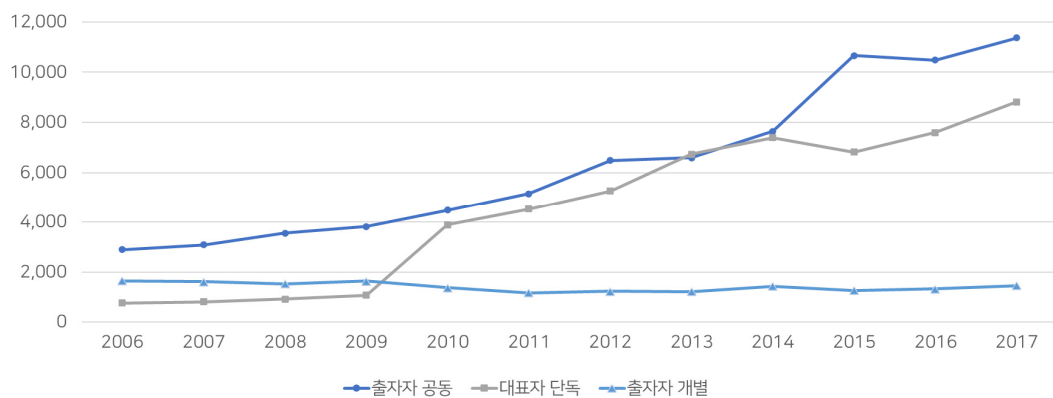
연도별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 변화 추이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근로자 유형은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상시 근로자는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로 분류하였으며 임시근로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로 분류하였다. 그래프를 보면 모든 유형별 고용 근로자 수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 당 조사자 수는 2006년도엔 19명이지만 2020년도엔 13.8명으로 감소하였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상근출자자는 2018년도, 상용근로자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감소하였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2018년도에 48,288명으로 전년도 보다 17,236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기준 10,136명, 농업회사법인은 14,363명을 고용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2018년 11,617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적 농업경영체인 회사형 농업법인이 영농조합법인보다 더 많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업법인은 청년농업인의 유입경로로 사용한다면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로 농업법인에 종사 중인 근로자의 연령대는 다음 <표 1>과 같다. 연도별로 5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으며 2020년에는 합이 63.3%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농업인인 20대와 30대의 수를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각 연도의 5%도 안 되는 적은 비중이며 감소하고 있다. 30대는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7년도엔 11%, 2018년도엔 13.2%, 2019년도엔 10.7%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의 합은 약 15%로 낮다.

## 2.2. 청년농업인의 취농의향 선행연구

청년농업인이란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을 뜻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교육 및 자금 등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2년 청년후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농촌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취농을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이나 노동력 유입을 위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Hannah, 2016; Ana, Carlos, Timothy, Gabriel, & Vitor, 2019; Muhammad, Syed, & Christian, 2021). 또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의 애로사항과 농업 진출 동기를



<그림 1> 연도별 농업법인 고용 근로자 수 현황

<표 1> 농업법인 연령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2017	6,117(4.7)	14,428(11.0)	25,583(19.6)	44,488(34.0)	40,221(30.7)	130,837(100)
2018	7,383(4.9)	19,710(13.2)	33,798(22.7)	45,714(30.6)	42,587(28.5)	149,192(100)
2019	6,042(3.8)	17,090(10.7)	35,369(22.1)	57,568(35.9)	44,181(27.6)	160,250(100)
2020	6,107(3.6)	18,411(10.9)	37,635(22.3)	60,739(36.0)	46,059(27.3)	168,951(100)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2017~2020)

분석한 결과, 영농 활동을 시작하기에 큰 애로사항은 토지, 농기계 등 농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Simpachová, 2018). Emmerling, & Pude(2017)은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대상이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낮은 경쟁력은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Hantos(2008)은, 청년농업인 정착은 농촌의 자발적인 협력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건, 청년농업인 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현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육성대책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김기홍, 2016; 김정호, 강정일, 김경덕, 정영환, & 최은아, 2015; 임소영 et al, 2016,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마련된 이후에는 정착이 주요 관심으로 보여진다. 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2022)의 연구에서 영농정착이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농촌에서의 생활에 있어 농업과 강한 연관성을 보일 때 영농정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용경, 황정일, 최윤지, & 최정신(2019)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과 성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농업인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은 영농에 있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이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섭, 이인규, & 정재원(2018)은 취농은 농가특성, 품목, 경영형태, 지역의 유형에 영향을 받으며, 각 취농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년농업인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통계청 귀농귀촌실태조사(2019~2021)에 따르면, 귀농인의 영농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이라는 응답이 45.6%가 1순위이며, 영농 수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영농 실패로 이어져 농촌 정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청년농업인의 역량에 관한 연구는 엄지범(202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농승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

년농업인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교육 연수에 대한 요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이때 土田志郎(1996), 島義史(2009)는 土田志郎(1996), 이기용, & 유찬주(2005)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에 맞춰 영농 역량지표를 정리하였다. 영농 영역은 5가지 재배관리, 작업관리, 판매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로 정리하였으며, 세부역량으로는 육묘관리, 비배관리, 병충해관리, 작업이해, 인력확보배치, 기계조작, 자재조달, 재고관리, 고객관리, 판매계획, 재무분석, 재무대책, 투자계획, 작업기록, 부기회계, 정보수집 총 18로 세분화하였다. 임병욱, 황성일, & 엄지범(2021)의 연구에서도 같은 역량지표를 이용하여 청년농업인 중 스마트팜을 창업하려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창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역량지표를 개인취농역량으로 사용하여 청년농업인을 농기출신과 비농기출신으로 구분 후 취농의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 3. 분석 방법

#### 3.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의 취농 의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및 대상은 다음 <표 2>와 같다. 대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전국의 청년농업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는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는 각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단체인 4H회와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실습연수 과정을 마친 재학생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해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으로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 75부, 오프라인 설문 110부로 총 185부의 응답을 받았으나 무응답·불성실 응답 4부를 제외하고 총 1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있어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농업법인에 대한

<표 2>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2년 9~10월
설문 장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내용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 및 희망하는 근로조건, 개인취업역량
조사 대상	청년농업인

인식,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취농의향, 희망하는 근로조건, 농업법인 취업 시 희망하는 역량 강화 기능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취농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프로빗 모형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측정도구 및 모형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의 측정항목은 다음 <표 3>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의 취업 의향은 이분형 범주인 ‘있다’와 ‘없다’로 측정해 표준 점수를 구해 추정하였다. 또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재개 시 사업 이용 의향을 ‘전혀 없다’부터 ‘매우 있다’까지 순서형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농업법인의 인지도, 일자리 확대 기대, 국내 농업법인 이미지를 농업법인 관련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청년들의 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경험 및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취업 시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 역량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넷째, 설문 응답자인 청년농업인의 개인적 특성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한 모형은 청년농업인 개인의 취농역량이 농업법인 취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인 취농역량 외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추가한 모형이다. 실증 연구는, 취농 의향은 이분형 프로빗 모형, 취업지원사업 이용 의향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 3.3. 분석 방법

개인취농역량이 취농의향과 취업지원사업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 프로빗 모형(Binary Probit Model)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청년농업인의 취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Binary Probit Model). 종속변수가 두 가지 값을 가지는 이산형 분석을 할 경우 선형 확률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 비선형 모형인 프로빗 모형과 로짓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모형은 결과 값에 큰 차이가 없어, 본 논문은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취업지원제도의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농업인의 농업법인 취업지원제도의 이용의향을 ‘전혀 없음’부터 ‘매우 있음’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프로빗 모형의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각 설명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해석하기 위해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응답 빈도 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들의 특징은 다음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70.7%로 매우 높으며, 연령은 10대가 59.1%로 가장 높고 30대

<표 3> 선택요인 측정을 위한 측정항목

구성개념	변수명	측정항목
종속변수	취농 의향	1=있다, 0=없다
	취업지원사업 이용 의향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농업법인 관련 인식	농업법인 인지도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알고 있다, ⑤ 매우 알고 있다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 기대, 국내 농업법인 이미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취농역량	육묘관리, 비배관리, 병충해관리, 작업이해, 인력확보배치, 기계조작, 자재조달, 재고관리, 고객관리, 판매계획, 판로확보, 상품개발, 재무분석, 재무대책, 투자계획, 작업기록, 부기회계, 정보수집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최종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재/대졸, ④ 대학원 이상

31.5%, 40대 9.4% 순이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응답자의 농업법인관련 인식 분석 결과

응답자의 농업법인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농업법인에 대한 인지 정도는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5명으로 전체 47%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은 보통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명으로 22.7%, 거의 모른다가 23명으로 12.7%,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1명으로 11.6% 순으로 나타난다. 약간 알고 있다와 매우 알고 있다, 두 긍정적인 인지정도는 총 106명, 58.6%로 과반 수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농업법인의 농촌 일자리 확대 기대 정도는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66명, 36.5%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다가 60명 33.1%, 매우 그렇다가 32명으로 17.7% 순으로 나타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명, 1.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농업법인으로 농촌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합은 54.2%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농업법인의 이미지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51.4%인 93명이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55명으로 30.4%, 약간 그렇다는 18명 9.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에게 농업법인의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농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농업법인 단기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정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는 거의 모른다는 답변이 37.8%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전혀 모른다가 30.4% 순이다. 사업에 대해 매우 알고 있다는 응답은 5명으로 2.8%이며 아무 적은 수치를 나타낸다. 응답자 중 대다수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은 농촌의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목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128(70.7)	최종 학력	고졸	19(10.5)
	여	53(29.3)		대학 재학/졸업	114(63)
연령	20대	107(59.1)		대학원 재학/졸업	48(26.5)
	30대	57(31.5)		합계	181
	40대	17(9.4)			

<표 5> 응답자의 농업법인관련 인식 (단위 : 명, %)

구분	인지정도		일자리 확대 기대		이미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6.0	2	1.1	9	5.0
별로 그렇지 않다	23	12.7	21	11.6	55	30.4
보통이다	41	22.7	60	33.1	93	51.4
약간 그렇다	85	47.0	66	36.5	18	9.9
매우 그렇다	21	11.6	32	17.7	6	3.3
합계	181	100.0	181	100.0	181	100.0

<표 6> 응답자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관련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업 인지 정도		노동력 유입 기대		구분	재개 희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5	30.4	22	12.2	그렇다	142	78.5
별로 그렇지 않다	63	34.8	48	26.5			
보통이다	29	16.0	74	40.9			
약간 그렇다	29	16.0	24	13.2			
매우 그렇다	5	2.8	13	7.2			
합계	181	100.0	181	100.0	아니다	39	21.5
					합계	181	100.0

적으로 사업의 농업에 대한 관심 촉진과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위 사업의 노동력 유입 기대 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74명,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48명으로 26.5%, 약간 그렇다가 24명으로 13.2% 순이다. 응답자들에게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이 재시행 희망에 대한 결과로는 그렇다가 181명 중 142명으로 78.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희망하지 않는 응답은 39명으로 21.5%이다.

### 4.3. 응답자의 농업법인 취업 의향 및 취업지원사업 이용 의향

다음 <표 7>은 응답자들의 농업법인 취업 의향에 대한 결과이다. 조사에 응한 청년농업인 중 취업 의향이 있는 응답은 98명

<표 7> 응답자의 농업법인 취업의향 및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 (단위 : 명,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취업 의향	없다	83	45.9
	있다	98	54.1
	합계	181	100.0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	전혀 없다	8	4.4
	거의 없다	18	9.9
	보통이다	62	34.3
	약간 있다	70	38.7
	매우 있다	23	12.7
	합계	181	100.0

<표 8> 응답자의 희망 근로조건

(단위 : 점)

항목	세부항목	평균	항목	세부항목	평균
노동법규 (4.52)	건강보험	4.50	커뮤니케이션 (3.86)	주간회의	3.71
	연금보험	4.34		전자결재 시스템	4.15
	고용보험	4.48		SNS (밴드 등) 활용	3.82
	근로기준법	4.57		정기적인 미팅	3.75
	산재보험	4.62		이메일 활용	3.86
	근로계약서	4.62	동기부여 (4.13)	직원 승진	4.15
복지후생 (3.99)	휴게실	4.25		정기적 승진	3.99
	육아/돌봄휴가	4.09		경영이념(목표) 명시/게시	4.04
	남녀별화장실	4.36	구체적 승진기준 설정	4.37	
	단합대회(워크숍)	2.83	직원 대상 연수	4.13	
	탈의실	4.08	작업효율화 (4.31)	작업장 등의 정리정돈	4.43
경조사급지급	3.99	연간 작업일정 작성		4.18	
시간 단위의 유급효과	4.35	작업일지 작성		4.18	
			작업 매뉴얼 정비	4.46	

으로 54.1%이다. 취업의향이 없는 응답은 83명으로 45.9%이다. 취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이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취업 의향 이유를 작성한 54명 중 35명은 농업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기술 및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7명, 원하는 근로조건이기에 5명, 농업으로의 취업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기에 3명,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3명,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명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험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의 취업을 장려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재개 시 이용의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0명으로 38.7%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보통이다가 62명 34.3%, 매우 있다가 23명으로 12.7% 순이다. 이용의향이 있는 ‘있다’와 ‘매우 있다’가 93명으로 51.4%로 과반 수 이상이다.

### 4.4. 응답자의 희망 근로조건에 대한 결과

응답자들에게 희망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각 세부항목 별 평균으로는 노동법규가 4.52점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가장 높으며, 작업효율화 4.31점, 동기부여 4.13점, 복리후생 3.99점, 커뮤니케이션 3.86점 순이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산재보험·근로계약서(4.62), 남녀별 화장실(4.36), 전자결재 시스템(4.15), 구체적 승진기준(4.37), 작업 매

뉴얼 작성(4.46)이다. 가장 낮은 세부항목은 연급보험(4.34), 단합대회(2.83), 주간회의(3.71), 정기적 승진(3.99), 연간 작업일지 작성·작업일지 작성(4.19)이다. 산재보험·근로계약서가 4.62점으로 모든 세부항목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합대회가 2.83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다.

#### 4.5. 응답자의 농업법인 취업 시 희망 역량 강화 기능에 대한 결과

응답자들에게 농업법인에 취업할 경우 본인의 역량 중 강화하고 싶은 기능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각 세부항목 별 평균으로는 판매관리가 4.37점으로 다양한 역량 기능 중 가장 강화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 정보관리 4.28점, 작업관리 4.26점, 재배관리 4.07점, 재무관리 4.96점 순이다. 각 항목별로 점수가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육묘관리(4.01), 투자계획(4.30), 정보수집(4.38), 판로확보(4.59), 작업이해(4.32)이다. 가장 낮은 세부항목은 비배관리(3.91), 재무분석(3.31), 부기회계(4.22), 재고관리(4.19), 자재조달(4.17)이다. 판로확보 기능이 4.59점으로 모든 세부항목 중 가장 높으며, 이에 비해 재무분석 기능이 3.31점으로 가장 낮다.

#### 4.6.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 의향과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농가 출신과 비농가 출신을 구분해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의향은 이분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농가, 비농가 출신의 청년농업인의 취업의향 및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

요인을 선택요인으로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로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 3문항, 개인취농역량 18문항, 인구통계학적 요인 3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설명변수들 간의 상호 유사성 유무를 다중공선성으로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 간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의 유사성이 높으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유의한 값이 나올 수 있는 변수지만 그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중공선성이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 VIF)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VIF가 10 미만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차와 VIF는 반비례 관계로 공차가 0.1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분석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의심할만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6.1. 이분형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청년농업인의 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이분형 프로빗 모형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취업 의향 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chi<sup>2</sup>)가 농가 출신은 0.0301, 비농가 출신은 0.0002로 각 95%,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의향 모형에서 농가 출신 응답자는 농업법인 이미지, 연령대가 10%의 유의수준,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 기대가 5%의 유의수준, 판로확보 기능이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값을 가지는 설명변수 중 판로확보기능과 연령대가 음의 관계로 분석되어, 판로확보 기능을 이미 확보한 농가 출신 응답자일수록, 고령일수록 취업의향에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양의 관계를 갖는 변수들에 대해 해석하면, 농업법인이 일자리 확대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응답자가 가진 농업법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설문 대상자인 청년

<표 9> 응답자의 농업법인 취업 시 희망 역량 강화 기능

(단위 : 점)

항목	세부항목	평균	항목	세부항목	평균
재배관리 (4.07)	육묘관리	4.01	판매관리 (4.37)	재고관리	4.19
	비배관리	3.91		고객관리	4.36
	병충해관리	4.29		판매계획	4.38
재무관리 (3.96)	재무분석	3.31	작업관리 (4.26)	판로확보	4.59
	재무대책	4.29		상품개발	4.36
	투자계획	4.30		작업이해	4.32
정보관리 (4.28)	작업기록	4.24	자재조달	인력확보배치	4.25
	부기회계	4.22		기계조작	4.31
	정보수집	4.38		자재조달	4.17



〈표 10〉 취업의향에 대한 이분형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설명 변수	농가 출신			비농가 출신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농업법인 인지도	0.2543	0.2495	0.308	-0.2598	0.2128	0.222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 기대	0.6935	0.2747	0.012**	0.5594	0.2497	0.025**
농업법인 이미지	0.6144	0.3168	0.053*	0.4913	0.2455	0.045**
육묘관리	-0.6816	0.5335	0.201	0.3938	0.6114	0.519
비배관리	0.0928	0.4741	0.845	0.2028	0.6621	0.759
병충해관리	-0.2814	0.4732	0.552	-0.0519	0.5908	0.930
작업이해	0.7598	0.6359	0.232	-0.5027	0.8614	0.559
인력확보배치	0.4243	0.4339	0.328	0.0080	0.4329	0.985
기계조작	-0.4342	0.5209	0.405	-0.5608	0.5511	0.309
자재조달	0.100	0.7068	0.119	-0.1541	0.6527	0.813
재고관리	0.8731	0.5752	0.129	-0.2362	0.9110	0.795
고객관리	-0.5449	0.4221	0.197	0.6283	1.1932	0.598
판매계획	0.0842	0.4292	0.844	-1.7916	1.6004	0.263
판로확보	-1.599	0.5599	0.004***	0.2509	1.1879	0.833
상품개발	0.4572	0.4530	0.313	1.1925	0.7184	0.097*
재무분석	-0.7200	0.6682	0.281	0.9829	1.3450	0.465
재무대책	0.0114	0.6917	0.987	2.100	1.0572	0.047**
투자계획	0.0958	0.4610	0.835	-0.7532	0.9924	0.448
작업기록	-0.2618	0.8353	0.754	-0.2508	1.0358	0.809
부기회계	-0.0540	0.8271	0.948	-2.6171	1.4017	0.062*
정보수집	-0.400	0.4155	0.335	0.7023	0.8172	0.390
성별	0.4609	0.4190	0.271	0.1081	0.5352	0.840
연령대	-0.6987	0.3776	0.064*	-0.3948	0.2946	0.180
최종학력	0.2685	0.3031	0.376	0.3724	0.4522	0.410
Number of obs		84			97	
LR chi <sup>2</sup> (12)		38.60			56.48	
Prob > chi <sup>2</sup>		0.0301			0.0002	
Pseudo R <sup>2</sup>		0.3405			0.4541	
Log likelihood		-37.390507			-33.951677	

주: \*p<0.1. \*\*p<0.05 \*\*\*p<0.01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비농가 출신 응답자는 상품개발 기능이 10%의 유의수준,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 기대, 농업법인 이미지, 재무대책 기능, 부기회계 기능이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값을 가지는 설명변수 중 부기회계 기능이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부기회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농업법인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촌 일자리가 확대된다고 기대할수록, 농업법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상품개발 기능과 재무대책 기능의 역량 강화를 희망할수록 농업법인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 출신 응답자와 비농가 출신 응답자 모두 농업법인의

일자리 확대 기대와 이미지 변수는 취업의향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취업의향에 영향을 받는 역량 강화 기능 측면에서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농가출신은 기존의 부모 세대가 확보한 판로를 물려받아 판로확보에 대한 기능을 확보했다고 인지할 경우 취업의향이 부의 관계를 갖는다. 농가출신과 반대로 비농가 출신은 부모 세대에게 물려받지 않은 경험을 요구하는 기능인 상품개발과 재무대책 기능의 강화를 희망할수록 취업의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4.6.2. 순서형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청년농업인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취업지원사업)’이

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 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chi<sup>2</sup>)가 농가 출신은 0.0011, 비농가 출신은 0.0001로 모두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 모형에서 농가 출신 응답자는 육묘관리 기능, 판매계획 기능, 판로확보 기능, 작업기록 기능이 10%의 유의수준, 상품개발 기능, 부기회계 기능, 연령대, 최종학력이 5%의 유의수준, 작업이해 기능, 고객관리 기능이 1%의 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한 값을 가지는 설명변수 중 고객관리, 판로확보, 작업기록, 성별, 연령대는 음의 관계로 분석되어, 고객관리, 판로확보, 작업기록 기능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여성일수록, 고령일수록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양의 관계를 갖는 변수들에 대해 해석하면, 육묘관리, 작업이해, 판매계획 부기회계 기능의 역량 강화를 희망할수록 취업지원사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비농가 출신 응답자는 육묘관리 기능, 재고관리 기능, 판로확보 기능이 10%의 유의수준, 판매계획 기능, 투자계획 기능, 정보수집 기능이 5%의 유의수준, 농업법인의 일자리 확대 기대가 1%의 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한 값을 가지는 변수 중 판매계획과 투자계획 기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취업지원사업의 이용의향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농업법인이 농촌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

<표 11>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에 대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설명 변수	농가 출신			비농가 출신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농업법인 인지도	-0.1937	0.1798	0.281	-0.0291	0.1252	0.816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 기대	0.1400	0.1740	0.421	0.6971	0.1559	0.000***
농업법인 이미지	-0.0450	0.2007	0.822	0.1858	0.1529	0.224
육묘관리	0.5909	0.3544	0.095*	0.5242	0.3106	0.091*
비배관리	-0.4585	0.3415	0.179	-0.1388	0.3211	0.665
병충해관리	-0.4193	0.3314	0.206	0.5158	0.3216	0.109
작업이해	1.2430	0.4139	0.003***	-0.1734	0.3172	0.585
인력확보배치	0.1213	0.2640	0.646	-0.1784	0.2719	0.512
기계조작	-0.2581	0.3104	0.406	-0.4323	0.3586	0.228
자재조달	0.1790	0.4506	0.691	0.1153	0.3295	0.726
재고관리	0.2210	0.3786	0.559	0.5443	0.3143	0.083*
고객관리	-1.2072	0.3408	0.000***	0.0408	0.3544	0.908
판매계획	0.6071	0.3310	0.067*	-1.0901	0.4383	0.013**
판로확보	-0.5952	0.3356	0.076*	0.6101	0.3565	0.087*
상품개발	0.7052	0.3082	0.022**	0.0444	0.3157	0.888
재무분석	-0.1873	0.4111	0.649	-0.6036	0.4917	0.220
재무대책	-0.5230	0.4392	0.234	0.8389	0.5174	0.105
투자계획	0.1650	0.3033	0.586	-0.8488	0.3701	0.022**
작업기록	-0.8553	0.5022	0.089*	0.0252	0.3292	0.939
부기회계	0.9432	0.4770	0.048**	-0.4763	0.3167	0.133
정보수집	0.2370	0.2934	0.419	0.9876	0.3466	0.004**
성별	-0.3751	0.3199	0.241	0.0212	0.2965	0.943
연령대	-0.5350	0.2443	0.029**	0.0915	0.1989	0.646
최종학력	-0.6223	0.2418	0.010**	0.2760	0.2790	0.323
Number of obs		84			97	
LR chi <sup>2</sup> (12)		50.76			59.72	
Prob > chi <sup>2</sup>		0.0011			0.0001	
Pseudo R <sup>2</sup>		0.2291			0.2256	
Log likelihood		-85.400			-102.49344	

주: \* p<0,1. \*\* p<0,05 \*\*\* p<0,01

할수록, 육묘관리, 재고관리, 판로확보,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할수록 취업지원사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농가 출신과 비농가 출신 모두 육묘관리 기능 강화를 희망할수록 사업을 이용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변수 중 자신이 보유한 판로확보, 판매계획 기능의 수준에 따라 취업지원사업의 이용 의향에 차이를 보인다. 자신이 판매계획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비농가 출신은 이용의향 가능성이 낮지만, 농가 출신은 판매계획 기능의 강화를 희망할수록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 가능성이 높다. 판로확보 기능은 이와 반대의 경우이다. 이는 출신 여부에 따라 각 기능의 유의수준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농업인의 농업법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을 세분화하여 취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시사한다.

#### 4.7. 설명변수별 한계효과

각각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인 취업의향과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12>와 <표 13>과 같다.

##### 4.7.1. 취농의향의 설명변수별 한계효과

먼저, 취업의향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 농가 출신은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수록 취업의향이 17.4% 증가하며, 농업법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면 취업의향이 15.4% 증가한다. 그러나 판로확보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취업의향이 40.1% 감소한다. 또한 연령대가 고령일수록 17.5%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농가 출신일 경우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수록 취업의향이 11.2%,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9.8% 증가한다. 영농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개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수록 23.9%, 재무대책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수록 42.2% 취업의향이 감소한다. 그러나 상품개발 역량이 필요할수록 취업의향이 2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7.2. 취업지원제도 이용의향의 설명변수별 한계효과

각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인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변수별 한계효과는 ‘전혀 그렇지 않음(Y=1)’, ‘그렇지 않음(Y=2)’, ‘보통이다(Y=3)’, ‘그렇다(Y=4)’, ‘매우

<표 12> 취업의향에 대한 확률과 설명변수별 한계효과

설명 변수	농가 출신			비농가 출신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 기대	0.1741	0.0621	0.005***	0.1125	0.0460	0.015**
농업법인 이미지	0.1543	0.0740	0.037**	0.0988	0.0467	0.034**
판로확보	-0.4016	0.1186	0.001***	-	-	-
상품개발	-	-	-	0.2398	0.1376	0.081*
재무분석	-	-	-	-	-	-
재무대책	-	-	-	0.4224	0.1969	0.032**
부기회계	-	-	-	-0.5263	0.2660	0.048**
연령대	-0.1754	0.0895	0.050*	-	-	-

주: \*p<0.1, \*\*p<0.05, \*\*\*p<0.01

<표 13> 취업지원제도 이용의향에 대한 확률과 설명변수별 한계효과

설명 변수	농가 출신					비농가 출신				
	Y=1	Y=2	Y=3	Y=4	Y=5	Y=1	Y=2	Y=3	Y=4	Y=5
농업법인 일자리 확대 기대	-	-	-	-	-	-0.038	-0.067	-0.086	0.073	0.119
육묘관리	-0.030	-0.053	-0.082	0.087	0.078	-0.029	-0.050	-0.065	0.055	0.089
작업이해	-0.063	-0.111	-0.174	0.183	0.165	-	-	-	-	-
재고관리	-	-	-	-	-	-0.030	-0.052	-0.067	0.057	0.093
고객관리	0.062	0.108	0.168	-0.178	-0.160	-	-	-	-	-

설명 변수	농가 출신					비농가 출신				
	Y=1	Y=2	Y=3	Y=4	Y=5	Y=1	Y=2	Y=3	Y=4	Y=5
판매계획	-0.031	-0.054	-0.084	0.089	0.080	0.060	0.105	0.135	-0.114	-0.186
판로확보	0.030	0.053	0.083	-0.088	-0.079	-0.033	-0.059	-0.075	0.064	0.104
상품개발	-0.036	-0.063	-0.098	0.104	0.093	-	-	-	-	-
투자계획	-	-	-	-	-	0.047	0.082	0.105	-0.089	-0.145
작업기록	0.043	0.076	0.119	-0.126	-0.113	-	-	-	-	-
부기회계	-0.048	-0.084	-0.132	0.139	0.125	-	-	-	-	-
정보수집	-	-	-	-	-	-0.054	-0.095	-0.122	0.104	0.168
연령대	0.027	0.048	0.074	-0.079	-0.071	-	-	-	-	-
최종학력	0.031	0.055	0.087	-0.092	-0.082	-	-	-	-	-

·: 순서형 프로빗모형 분석결과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아 한계효과를 계산하지 않음

그렇다(Y=5)'에 대해 계측되었다.

분석 결과 농가 출신은 고객관리, 판로확보, 작업기록 기능에 대해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수록 취업지원사업을 이용할 의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부모 세대의 기반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육묘관리, 작업이해, 판매계획, 상품개발, 부기회계 기능에서는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따라 새로운 영농 방법을 습득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표 12>에서와 달리 농가 출신이 판로확보에 사업 이용 의향을 보이는 이유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이 단기 실무연수 기회이기에 판로확보 기능의 역량 강화 후 자신의 사업장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비농가 출신은 물려받는 영농기반이 없을 가능성이 낮기에 영농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농업법인이 일자리 확대를 한다고 기대할수록 취업지원사업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육묘관리, 재고관리, 판로확보, 상품개발, 정보수집에 대한 기능이 필요할수록 취업지원사업을 이용할 의향이 증가한다. 그러나 판매계획, 투자계획이 비농가 출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농업법인 고용주는 대부분은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E커머스 등 판매와 투자 환경의 변화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5. 결론

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유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 중 요소가격 상승으로 자영취농의 어려움, 영농 경험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농업인의 유형

중 고용형 취농에 대한 지원정책 확충 등 관심 증가가 필요하다. 최근 농업법인의 흐름을 보자면 2018년을 기준으로 가족 외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농업회사법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경로로 우수한 농업법인을 활용한다면 영농정책의 애로요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지원 제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심층적인 지원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취농역량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문제(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나 정책적 검토(김기홍, 2016), 그에 따른 육성대책 수립(김정호, 강정일, 김경덕, 정영환, & 최은아, 2015; 임소영 et al., 2016) 등 주어진 제도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고용형 농업법인을 청년농업인의 유입 경로로 상정하고,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개인취농역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청년유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년농업인의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취업 지원 정책의 관심, 희망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이 취농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취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청년농업인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희망하는 근로조건, 농업법인 취업 시 희망하는 역량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응답을

받았다. 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 또는 조부모의 농업 종사 유무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농가 출신 비율은 46.4%, 비농가 출신 응답자는 53.6%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인식은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7%가 약간 알고 있다, 보통이다가 22.2%로 응답하였다. 농업법인으로 인해 농촌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약간 그렇다가 36.5%, 보통이다가 33.1%, 매우 그렇다가 17.7%로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농업법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가 51.4%, 별로 그렇지 않다가 30.4%로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은 65.2%로 인지 정도가 매우 낮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노동력 유입에 대한 기대는 보통이다가 40.9%, 별로 그렇지 않다가 26.5%이다. 사업에 대한 재개 희망은 그렇다가 78.5%로 높게 나타난다.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진행한 설문에서 재개 희망이 높기에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아진다면 이용할 청년농업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취농 의향은 54.1%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51.4%로 과반수 이상이다. 희망하는 근로조건은 중요도는 노동법규, 작업효율화, 동기부여, 복리후생, 커뮤니케이션 순이며, 희망하는 역량 강화기능은 판매관리 기능, 정보관리 기능, 작업관리 기능, 재배관리 기능, 재무관리 기능 순이다.

실증 분석은 취업의향은 이분형 프로빗 모형을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농업인의 취농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농업인의 농촌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시사점은 농업법인에 취업한 청년을 청년농업인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여 선별적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농업법인을 통한 청년농업인 진입 단계별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은 경영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 등의 역량을 청년농업인에게 전수하는 교육을 전수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청년농업인들은 농업법인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다고 기대할수록 농가, 비농가 출신의 취농 의향과 비농가 출신의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이 높다. 또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재개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과반수 이상이다. 농촌 진입 전 청년농업인에게 농업법인의 일자리 확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

들에게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재개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농업법인에 취업을 한다면 농업 종사의 경험적인 측면을 기대하기 때문에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현장실습교육(WPL) 인큐베이팅 과정을 만들어 장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영농현장에 투입되더라도 문제없는 농업인을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모티브로 농업법인 자체가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취업해 연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입 이후의 청년들에게는 성장단계의 지원을 진행하는 것인데, 농업법인의 자본을 바탕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으로 농장을 분양 사업을 통해 경영 자본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토지와 같은 요소가격 상승으로 영농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몰입도와 애착심이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농업법인이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영농기반을 제공한다면 청년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농업법인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에 대한 취농 의향은 농가 출신, 비농가 출신 모두 국내 농업법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높아진다. 그렇기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이미지 향상이 필수적이다. 국내 농업법인은 부동산 투기, 보조금 수급을 위한 유령 법인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발생해왔다.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농업법인을 조사 및 발굴하여 우수 경영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 등 부적절한 운영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제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법인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농업법인의 해산을 요구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법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설문 결과 중요도가 4점 이상인 근로조건은 노동법규, 작업효율화, 동기부여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단합대회의 경우 평균 2.83점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자신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농업법인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법인경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청년농업인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영농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농업인의 출신별 필요로 하는 역량 기능이 다른 기능인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의향에서 농가 출신은 필요로 하는 영농 기능은 없으며, 비농가 출신은 상품개발, 재무대책 기능을 필요로 한다. 취업지원사업 이용의향에서 농가 출신은 육묘관리, 작업이해, 판매계획, 상품개발, 무기회계 기능의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며, 비농가 출신은 육묘관리, 재고관리, 판로확보, 정보수집 기능의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출신별, 유형별, 지역별, 희망업체별 청년농업인을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 출신 여부에 따라 청년농업인을 구분하였으며, 출신 여부는 청년농업인 구분 기준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농업인의 취업 의향을 바탕으로 한 농업법인의 고용 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업인력 확대 방안을 위한 요인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고용에 대한 의향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농업법인의 역할 등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혜정, & 송우진. (2015). 소비자의 건강관심도가 원산지별 쇠고기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경제연구*, 56(2), 67-88.
- 권혜진. (2019). 농업법인의 유형별 고용인력 수요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 (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추진방향*. 공주: 충남연구원.
- 김기홍. (2018).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정참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61-173. doi:10.12653/jecd.2018.25.3.0161
- 김성섭, 이인규, & 정재원. (2018). 취농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계획*, 24(4), 27-35. doi: 10.7851/ksrp.2018.24.4.027
- 김정호, 강정일, 김경덕, 정영환, & 최은아. (2015).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서울: (사)환경농업연구원.
- 마상진, 정은미, & 김정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 박시현. (2020). *농림어업 고용 동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환석, & 황재현. (2020). 향토음식점 소비자의 선택속성이 태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69-88.
- 소윤경, 한재환, 김원빈, & 엄지범. (2023).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향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50(1), 188-210.
- 엄지범. (2020). 영농승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영농실습 요구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7(4), 159-171.
- 엄지범, 김원빈, 심근호, & 안주영. (2022). 청년농업인력확보를 위한 일본정책 사례와 시사점. *농촌 농업 인구 감소와 관계인구 확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의 과제와 방향* (pp. 62-80). 2022년 한국농촌지도학회 추계학술대회.
- 엄지범, 윤진우, & 유찬주. (2018). 영농설계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록 농업인 특성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5(1), 108-127. doi:10.30805/KJAMP.2018.45.1.108
- 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 (2022).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9(2), 99-110.
- 임소영, 김정섭, 이실, 김관수, 유도일, & 이병훈. (2016).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인력육성사업군 심층평가*.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임병욱, 황성일, & 엄지범. (2021).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의 교육 요구 분석 - 교육과정 우선순위 도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9(1), 137-161. doi:10.22921/jrs.2021.29.1.006
-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과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6(3), 143-151. doi:10.12653/jecd.2019.26.3.0143
- 정성지. (2020).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27(2), 89-110.
- Ana, P. P., Carlos, C., Timothy, S., Gabriel, C., & Vitor, F. D. C. (2019). Factors influencing intergenerational succession in family farm businesses in Brazil. *Land Use Policy*, 87, 104045. doi:10.1016/j.landusepol.2019.104045
- Baoling, Z., Ashok, K. M., & Biliang, L. (2018). Aging population, farm succession, and farmland usage: Evidence from rural China. *Land Use Policy*, 77, 437-445. doi:10.1016/j.landusepol.2018.06.001
- Emmerling, C., & Pude, R. (2017). Introducing miscanthus to the greening measures of the EU common agricultural policy. *Gcb Bioenergy*, 9(2), 274-279. doi: 10.1111/gcbb.12409

22. Hannah, M. C. (2016).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hanging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farm transfer. *Sociologia Ruralis*, 58(1), 104-125. doi:10.1111/soru.12138
23. Hantos, K. (2008). Keeping young farmers in rural areas. *GAZDÁLKODÁS: Scientific Journal on Agricultural Economics*, 52, 119-124. doi:10.22004/ag.econ.48099
24. Ichihara, G., Matsukawa, T., Kitamura, F., & Yokoyama, K. (2019). Risk factors for occupational accidents in agricultural enterprises in Japan. *Industrial Health*, 57(5), 627-636. doi:10.2486/indhealth.2017-0218
25. Muhammad, A. S., Syed, A., & Christian, F. (2021). Factors affecting farm succession and occupational choices of nominated farm successors in Gilgit-Baltistan, Pakistan. *Agriculture*, 11(12), 1203. doi:10.3390/agriculture11121203
26. Šimpachová, P. M., Šimpach, O., Medonos, T., Spěšná, D., & Delín, M. (2018). What are the motivation and barriers of young farmers to enter the sector? *AGRIS on-line Papers in Economics and Informatics*, 10(4), 79-87. doi:10.22004/ag.econ.281659
27. Um, J. (2018). Formation and organization principl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South Korea: A departure from 'Cooperative unit' type agricultural cooperation. *Memoirs of the Research Faculty of Agriculture, Hokkaido University*, 35(2), 9-65.

Received 06 June 2023; Revised 12 June 2023; Accepted 20 June 2023



MS. Ju-Young An is a Master Student at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farm management and agribusiness.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Jeollanam-do, 57922 Republic of Korea  
E-mail: 1232001@s.scnu.ac.kr  
phone: 82-61-750-3276



Dr. Ji-Bum Um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farm management and agribusiness.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Jeollanam-do, 57922 Republic of Korea  
E-mail: umjibum@scnu.ac.kr  
phone: 82-61-750-3271